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0~9/1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서른부터 다가온 반야심경의 행복	정찬주	다연
2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불광출판사
3	서장-간화선의 교과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출판사
4	인연 아닌 사람은 있어도 인연 없는 사람은 없다	묘장	불광출판사
5	있는 그대로 좋아(부처와 돼지2)	고이즈미 요시히로	들녘
6	묘법연화경	광우, 정목	김영사
7	인과경	지묵	우리출판사
8	육조법보단경-덕이본	김호귀	토파민
9	백장어록	김태완	침묵의향기
10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송한글 화엄경	해주 초역	불광출판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숨(빨리어호흡관법경강의)	래리 로젠버그/마산	한언
4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불교의 이해와 신행(조계종신도교재2)교리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탁낫한/허유서,허주형	운주사
7	화림산책:스님이한시로들려주는소소한삶의이야기	묵암 강대인	맑은소리맑은나라
8	가장 행복한 공부(청화큰스님말씀)	청화 지음	아시아문화커뮤니티
9	홍차학 개론	정영숙	차와문화
10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깨달음의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

원제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 2만원

584자에 담은 깨달음 요체
생생한 경험 바탕으로 강설
'마음의 중심' 찾는 나침반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홀연히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다. 가만히 떠가는 구름을 보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고, 그렇게 세상은 아름답다' 느끼기도 하고, 돌에 기대 쉬고 있다가 문득 '내 몸의 호흡과 관계없이, 세상이 자기만의 고른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대승기신론〉에 따르면 '홀연(忽然)'은 "우리가 본래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 무명과 번뇌의 중생으로 변화하게 된 순간"을 가리킨다. 시간의 개념도, 인과의 개념도 아닌 '홀연'은 어쩌면 우리를 다시 부처의 자리로 돌려놓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원제 스님(김천 수도암)은 〈신심명〉에서 이런 '홀연한 순간'을 마주한다. 해인사로 출가 후 은사 도림 법전 스님(전 조계종 종정)에게 받은 〈성철 스님의 신심명·증도가 강설〉을 매일 읽다, 〈신심명〉과 〈증도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게 됐고 틈날 때마다 한글과 한자로 노트에 옮겨 쓰며 그 뜻을 헤아렸다. 그때의 인연이 이 책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으로 이어졌다.

〈신심명〉은 146구 584자로 수행과 마음, 신심과 깨달음의 요체를 함축적으로 노래한 시문(詩文)이다. 선(禪) 문학의 정수로 평가 받는 고전이지만, 함축적 문장을 단박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며 통연히 명백하니라."



원제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신심명〉의 첫 구절을 두고 원제 스님은 대학 시절 경험을 떠올린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한 장난을 치는 친구 때문에 며칠간 괴로워하던 때,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겨난다'는 문장을 보고 홀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다.

스님은 "사흘간의 지독하고 혼란스러웠던 고통은 이 문장 하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며 "나로부터 풀려나면 세상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에 '통연명백'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풀려남으로써 세상을 온전한 불국토로 맞이하게 된다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스님은 선방에서 겪은 수행의 좌절, 감정의 파고, 번민과 깨달음의 순간을 토대로 〈신심명〉을 풀이한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는 경험들은 깨달음이 홀연 일상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수행이란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차츰차츰 끄는 행위입니다. … 내가 가진 등불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틀이며 관점입니다. 내가 특정한 틀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고작 코앞에 있는 조그만 영역만 밝힐 뿐입니다. 하지만 나의 등불을 스스로 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달빛이라는 거대한 등불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휘몰아칠 때, 〈신심명〉의 한 구절을 읽고 뜻을 새긴다면 마음의 중심을 잡게 도와줄 한 문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삶을 철저하게 통찰하는 '간화'

〈看話〉



현대인을위한 간화선

오용석 지음
운주사 / 2만3000원

중도적 입장서 통합·구조화
일상 속 간화선 수행법 제안

삶은 곧 생존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과 세계를 향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모색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구도(求道)'라 이름한다.

이 책은 '간화선(看話禪)'을 구도의 구체적 수행법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간화선은 어떤 행위를 문제 삼기보다 바로 그렇게 행위하는 당체(當體)를 직접 겨냥해 우리로 하여금 뿌리 깊은 자아의식과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고 말한다. '진리'조차도 탐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간화선'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사들의 말씀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 책들과 달리, 간화선의 핵심적 수행법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장에서는 간화선에서 '중도'의 의미를 살핀다. 특히 반야중관학의 입장에서 선불교의 중도가 갖는 교리적·수행적 의미를 짚는다.

2장에서는 간화선에 마음을 돌이키는 반조(反照)의 특성이 있으며, 그것의 사상적 구조가 팔정도의 중도에 기반함을 살핀다.

이어 △3장 선불교의 몸·마음에 나타난 중도 △4장 선불교의 수행·깨달음 △5장 간화선의 화두참구 △6장 화두의식의 낙처에서는 간화선을 중도적 입장에서 통합하고 구조화해 현대적으로 조명한다.

7장 '간화선과 사회·자비행'에서는 선불교와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고, 8장 '간화선과 삶'에서는 '간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한다.

저자는 "화두를 살피는 '간화'의 행위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철저하게 통찰하겠다는 발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간화선 수행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자비의 실천이라는 보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예순에 부처의 길을 걷다



너에게 미치도록 걷다

박인식 지음
생각정거장
1만9000원

100일간의 네팔 · 인도 순례길
독특한 기행문학 · 15주년 복간

2010년, 저자는 나이 예순에 두 명의 길동무와 '부처의 길'로 떠났다.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를 시작으로 깨달음의 땅 보드가야, 최초 전법지 사르나트, 열반지 쿠시나가르까지 불교 4대 성지를 거쳐 최초의 비구니 탄생지 바이샬리, 불교 3차 결집지 파트나, 영취산이 있는 라즈기르까지 '부처의 길'을 빠짐없이 걸었다.

100일 동안의 기행은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다. 저자는 "감히 그 길을 걷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고자 한 것은 아니"라며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결에 오래 잊었던 영원과 불멸과 자유의 속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져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첫 여정인 룸비니에서는 짙은 안개 속에서 '하늘과 하늘 사이에 나 홀로 존귀하다'는 탄생게를 새기고, 카필라성 궁터에서는 싯다르타 왕자의 고뇌와 출가의 순간을 떠올린다. 때로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때마다 자신에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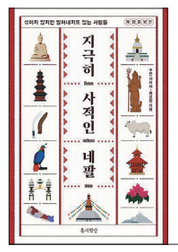
"부처가 태어난 데서부터 걸어온 사람이다. 하지만 아직 내가 누군지는 모른다. 그걸 알고 싶어 부처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 보려 한다."

부처님의 다비터 위에 세워진 라마르바르 스투파에서 여정을 마친 저자는 '이미 부처 곁으로 가 버린' 이들을 떠올리며 되뇐다.

"걸음은 끝나도 길을 끝나지 않았다. 길은 영원했다. 길은 불멸을 기약했다. 길은 자유였다."

저자는 월간 '사람과 산' 발행인 겸 편집인을 역임했다.

네팔인이 전하는 네팔의 속살



지극히 사적인 네팔

수잔 샤키야 · 홍성광 지음
틈새책방 / 1만8000원

'나마스테' 뜻부터 역사·일상 소개
구르카 인터뷰 등 담은 개정증보판

틈새책방이 펴내는 '지구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시리즈의 인기작 〈지극히 사적인 네팔〉의 개정증보판이다.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네팔인 수잔 샤키야와 홍성광 씨가 네팔의 속살과 사람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사말 '나마스테'에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부터, '있지만 없는' 카스트제, 히말라야 셰르파의 사연, 네팔의 독특한 달력과 국기 등 신기하면서도 매력적인 네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번 책에는 2022년 초판에 담지 못했던 두 편의 이야기가 수록됐다. 하나는 세계적 명성의 영국 왕립 구르카 소총연대 소속 파라스 구룽 하사와의 심층 인터뷰다. 혹독한 선발 과정과 자부심, 구르카에 대한 궁금증을 담았다. 다른 하나는 저자 수잔 샤키야의 부인 송현정 씨의 '네팔 문화 관찰기'다. 네팔의 대가족과 생활하며 겪은 문화 차이와 끈끈한 가족애를 엿볼 수 있다.

"한국 불교미술만의 독창적 세계,
드디어 만나는 신중도神衆圖"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선신善神들,
그 장엄한 세계를 해부한 최초의 연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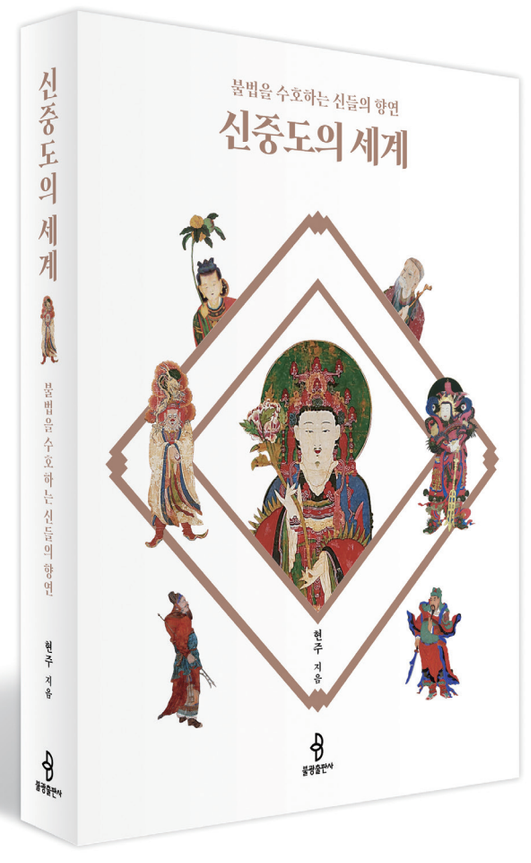
신중도의 탄생과 전개, 도상의 비밀을
세밀하게 파헤친 단 하나의 책!



신중도는 불교적 지식 없이는 거의 해석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道敎)의 신들도 섞여 있어 융·복합적인 시각과 끈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불화이다. 현주 스님은 이처럼 난해한 신중 그림을, 시기에 따른 양식적 특징까지도 포함시켜 참 쉽게도 설명해 주었다. 이 한 권이면 신중도가 더더욱 친밀해지고, 불화는 더 이상 도깨비 그림이 아니다. _동국대 명예교수 정우택

현주 스님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 신중도를 중점적으로 탐구한 연구자로서, 신중도 관련 학술논문만 13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중도의 세계

현주 지음
504쪽 | 올컬러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